

##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우울과 도박심각성의 관계에서 부정정서로부터의 회피 동기가 미치는 영향

허 연 주                      성 유 리                      박 광 배<sup>†</sup>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도박의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 우울,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선행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서 우울과 도박의 관계를 부정정서로부터 회피동기가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남에 소재한 4개의 대학교 소속인 대학생 이상의 성인 239명(남학생 104명, 여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진단검사(K-PDT), 한국 우울증 척도(KDS), 도박심각성을 측정하는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CPGI-2011), 회피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5요인 도박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는 회피동기가 우울과 도박심각성 사이를 매개하였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회피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우울에 의해 경험되는 부정정서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박행위가 심해질 수 있는 반면, 반사회성 성향이 약한 사람은 우울로 인해 유발되는 도박행위가 회피동기 외에 다른 소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도박행위에 대한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반사회성 성격장애, 우울, 회피동기, 도박

<sup>†</sup>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362-76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2011년 110억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이 발견된 일명 ‘마늘밭 사건’에서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상속적인 불법도박, 프로 스포츠 감독과 선수들의 승부조작,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비관한 자살,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까지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2013년 7월에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유치원생을 납치한 조선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도박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놀이 문화의 일종이지만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명명될 정도로 죄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쉽게 유흥 행위로 시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기관에 적발될 정도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상속적인 병적도박 상태인 도박중독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김진혁, 2013).

도박이란 사전적 의미로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한다. 적절한 수준의 도박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도 사행산업은 국가에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각종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 해당 산업들의 발전을 이끄는 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일부 사행산업을 허용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도박은 7종류로 룩셈부르크의 합법도박이 2종, 미국이 4종, 일본이 6종인 점을 고려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사행산업 허가 업종이 가장 많은 상태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형법 246조 2항에 따라

일시적인 오락 수준인 경우에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모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246조에서 재물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도박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이준복 등, 2014).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박은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채테크의 일환으로 성인들의 대부분이 한 번쯤 시도해 보았을 기업투자로 생각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만큼 과도한 돈과 시간 에너지를 투여하고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당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이나 바둑, 장기와 같은 활동도 경쟁을 하면서 ‘돈내기’를 한다면 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정은, 2013).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 사행산업에서부터 불법도박, 놀이나 내기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모든 활동을 도박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도박은 도박 문제로 야기되는데 도박에 의한 범죄, 병적도박 상태인 도박중독, 도박에 의한 사회문제로 나뉜다(김용현, 신재현, 김상운, 2010). 이러한 도박문제는 독립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병적도박으로 인해 불법적인 수준에 이르는 과도한 도박활동에 몰두하게 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일으키는 식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이준복 등, 2014).

DSM-5(APA, 2013)에서는 도박장애 진단기준을 새롭게 추가해서 독립적으로 다루는 등 이전에 비해 도박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도박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박 관련 비합리

적 신념이 문제성 도박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권선중, 2014)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음주가 도박의 습관화 경로를 거쳐 문제도박 심각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유채영, 김은혜, 2014).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우울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도박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높은 충동성은 심각한 수준 도박자의 특징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이인혜, 2004; Vitaro, Arseneault, & Tremblay, 2002; Blaszczynski, & Nower, 2002). 도박행동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우울은 다른 정신질환과 합쳐져서 도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도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Griffiths(1995)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 중 대략 43%가 도박 이전에 우울한 반면 비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대략 7%만이 도박 이전에 우울을 보고하였다. 특히 만성적으로 우울한 경향이 있는 심각한 도박자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경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통한 흥분, 긴장감 추구를 하게 되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행동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심각한 수준으로 도박에 몰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Griffiths, 1995). Dickerson, Baron, Hong과 Cotrell(1996)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도박관련 역학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약 9%가 우울한 기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도박을 한다고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도박중독의 결과로 우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Lesieur, & Rosenthal, 1991; McCormick, 1987) 심

각한 수준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 우울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반사회적 성향이 선행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이전에 직업생활 파탄이나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민성길, 2000) 실질적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가 도박문제와 연결될 경우, 병적인 도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민성길, 2006)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15~40%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APA, 1994, 윤현철 외, 2014 재인용). 반사회성 성격장애란 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한다. 이들은 앞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등 충동성이 강하며 범죄, 비행, 공격적 행동이 일반적이라서 감옥이나 법정 같은 곳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도 긴장감, 지루함, 권태로움, 우울기분과 같은 불쾌감에 빠지기도 하므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APA, 1994).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을 때도 전혀 불안이나 우울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냉담하다는(신희천, 신은향, 2000) 특징과 다소 상반되는데, 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은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공허감이나 지루함이 특징적이라는 부분에서(이규환, 2009)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Cloninger(1987)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성인

자극추구,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예기 불안, 수줍음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위협회피,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쉽게 맺고 사회적 보상과 관계가 있는 사회적 민감성, 보상이 없거나 간헐적 강화만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 시간,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성인 인내력이라는 4가지 차원의 성격모형을 제시했다. 높은 자극추구는 심각한 비행행동을 지속해서 일으킬 가능성을 예측하는 좋은 소인이며 높은 자극추구, 낮은 위협회피 기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비행행동이나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Dickerson, Baron, Hong, & Cotrell, 1996). 돈이라는 강화물이 간헐적 간격으로 즉시 주어진다(Delfabbro & Winefield, 1999) 도박의 특성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기질이 결합하여 심각한 수준의 도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의한 선행변인은 아마도 동기일 것이다. 이것은 도박행동도 다르지 않다. 기분전환, 친목도모, 돈을 따기 위해, 재미처럼 다양한 동기가 도박행동을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선행변인일 수 있다. 이홍표(2003)는 도박을 하는 동기를 5가지로 분류하였다. 비난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동조동기와 사교적 목적을 포함하는 사교동기, 행위에 내재하는 가벼운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유희동기, 낮은 자존감, 우울감 및 불쾌 정서를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회피동기, 금전적 추구 또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동기인 금전동기, 마지막으로 신체적 각성으로 경험되면서 적정 수준의 각성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 도박을 지속하는 흥분동기가 그것이다. Jacobs(1987)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의 도

박자들은 자극추구와 회피동기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Ibanez, Blanco, Moreryra와 Saiz-Ruiz(2003)에 의하면 성격적으로 내향적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응력이 빈약한 현실도피 적응장애 유형의 심각한 수준의 도박자가 있는데,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박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laszczyński와 Nowot(2002)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취약한 도박자들이 정서적 회피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홍표(2003)는 금전동기와 흥분동기는 도박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며 도박문제가 심각한 도박자일수록 흥분동기와 회피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밝혔다. 흥분동기와 회피동기는 금전동기가 있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상물이라는 물리적 소인이 아닌 내적 소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도박 행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부정정서에 대한 회피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재발의 위험성을 외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흥분동기와 회피동기 중에서 도박의 원인인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정서로부터의 회피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에서 우울과 도박심각성 사이에 회피동기의 역할을 알아보려고 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자극추구나 위협회피를 통해 각성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우울과 도박심

각성 사이에 부정정서에 대한 회피동기의 역할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사회성과 도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과 도박과의 관계에서 우울과 동기의 역할을 함께 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도박은 모두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으므로(민성길, 2006) 치료를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좋은 경과나 예후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사회성 성향자에게서 우울과 부정정서 회피 동기의 역할을 밝혀낼 수 있다면 반사회성 성향자의 도박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소재한 4개의 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35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가운데 도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 115명을 제외한 239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참가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6세(범위: 18~36세)이고, 남성이 104명(43.5%), 여성이 135명(56.5%)이었다. 참가자의 학력분포는 3학년이 116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72명(30.1%), 1학년 26명(10.9%), 4학년 18명(7.5%), 대학원 6명(2.5%), 기타 1명(0.4%)이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는 진단기준이 없는 경향성 척도이므로 척도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갖는 T점수로 환산한 후, 환산점수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50명을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56세(범위: 19~26세)이고 성별은 남성 28명(55%), 여성 22명(44%)로 분포되어 있다. 그 외 일반인의 평균연령은 21.64세(범위: 18~36세), 남성 76명(40.2%), 여성 113명(59.8%)으로 분포하였다.

### 측정 도구

####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K-PDT)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Korean Personality Disorder Test: K-PD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자기보고형 질문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성격장애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119문항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는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성격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장애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68이었다.

#### 한국 우울증 척도(KDS)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이민수와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한국 우울증 척도(Korea Depression Scale: K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걱정 및 초조, 우울한 기분, 신체화 증상, 의욕상실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은 5문항이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이민수와 이민규(2003)의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5이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는 .95였다.

###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 척도(KCPGI-2011)

도박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2011)이 타당화한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orea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2011)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박중독이라고 불리는 도박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졌고 채점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타당화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4이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는 .82였다.

#### 5요인 도박동기 척도

도박 행동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홍표(2003)가 제작하고 타당화한 5요인 도박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스틸과 통제감을 누리고자 하는 흥분동기, 친목도모를 위한 사교동기, 부적 정서를 경감시키려는 회피동기, 금전의 이득이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동기, 가벼운 즐거움이나 기분전환을 위한 유희동기의 다섯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아니다(0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가 도박을 하는 이유는 ‘우울할 때

/ 기분이 울적할 때’, ‘화가 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괴로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이 안될 때’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피동기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 절차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에 따른 우울이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정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T점수가 상위 20%인 참가자를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그 외의 참가자를 약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우울을 독립변인, 회피동기를 매개변인, 도박심각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반사회성 성향 강약에 따른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2), 반사회성 성향 강약과 상관없이 우울과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사회성 성향이 강한 집단은 우울과 회피동기가 정적상관하였고( $r=.46, p<.01$ ), 도박심각성과도 정적상관하였다( $r=.44, p<.01$ ). 회피동기와 도박심각성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적상관하였다( $r=.66, p<.001$ ). 반사회성 성향이 약한 집단도 성향이 강한 집단과 동일하게 우울과 회피동

기( $r=.21, p<.01$ ), 우울과 도박심각성( $r=.24, p<.01$ ), 회피동기와 도박심각성( $r=.22, p<.01$ )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적상관하였다.

표 1. 반사회적 성향 강집단의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우울	1		
회피동기	.46**	1	
도박심각성	.44**	.66***	1
평균	27.80	10.30	2.58
표준편차	21.05	5.33	3.84

\*\* $p<.01$ , \*\*\* $p<.001$

표 2. 반사회적 성향 약집단의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우울	1		
회피동기	.21**	1	
도박심각성	.24**	.22***	1
평균	19.34	9.04	0.78
표준편차	17.14	3.75	1.80

\*\* $p<.01$ , \*\*\* $p<.001$

표 3. 반사회적 성향 강집단: 우울과 도박심각성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도박심각성			
		$\beta$	$t$	$R^2$	$F$
1	우울(독립)	.44	3.37**	.19	11.32**
2	우울(독립)	.16	1.37	.44	20.15***
	회피동기(매개)	.59	4.86***		

\*\* $p<.01$ , \*\*\* $p<.001$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우울과 도박심각성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표 1과 같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회피동기가 우울이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1단계에서 우울이 도박심각성을 19.1% 설명하였으며 도박심각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4, p<.01$ ). 2단계에 매개변인인 회피동기를 추가하자 1단계에서 도박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우울의 영향력이 사라졌으며( $\beta=.16, ns$ ), 매개변인인 회피동기가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59, p<.001$ ). 이는 회피동기가 우울과 도박심각성 사이를 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피동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14, p<.01$ ).

반사회적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도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앞서 실시한 분석방법으로 우울과 도박심각성 사이에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2

표 4. 반사회성 성향 약집단: 우울과 도박심각성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도박심각성			
		$\beta$	$t$	$R^2$	$F$
1	우울(독립)	.24	3.42**	.06	11.71**
2	우울(독립)	.21	2.87**	.09	8.97***
	회피동기(매개)	.17	2.43*		

\* $p < .05$ , \*\* $p < .01$ , \*\*\* $p < .001$

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울은 도박심각성을 5.9% 설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24$ ,  $p < .01$ ).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에 회피동기변인을 투입하자, 우울이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beta = .21$ ,  $p < .01$ ), 회피동기가 도박심각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 ,  $p < .05$ ).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도박심각성 간의 관계에서 회피동기의 매개효과가 미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에 따라 우울과 회피동기가 도박의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즉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정정서로부터 회피동기에 따라 우울이 도박의 심각성에 이르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반사회성 성향이 강한 집단은 우울을 더 많이 보고할수록 도박의 심각성이 더 높아졌으며 둘 사이의 관계를 도박의 동기 중 부정정서에 대한 회피동기가 매개하였다. 이는 반사회성 성향이 강한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분노, 불안 등에 대한 부정정서나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고자 도박을 선택하는 동기가 더욱 높아지며, 이렇게 높아진 불안, 지루함이나 권태로움 등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정서를 경감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현실적 어려움이나 상황으로부터 격리 등 욕구 충족의 어려움이나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과 같은 우울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도박중독자들이 도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각성이나 흥분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지만(이태원, 2004) 현실도피 적응장애 유형의 도박중독자들은 정서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Ibanez, Blanco, Moreryra, & Saiz-Ruiz, 2003). 또한, 5요인 도박동기 척도의 제작자인 이홍표(2003)는 회피동기를 부정정서의 회피로 정의하였으나 측정문항의 내용(피로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등)을 통해 부정정서를 동반하는 현실에 대한



회피 또한 측정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정서 회피에 국한되지 않고, 복잡한 일, 괴로운 현실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회피하기 위해서도 도박을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심각한 수준의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회피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도박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Ibanez, et al., 2003) 반사회성 성향이 강하면서 우울한 사람들은 자극이 적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도박을 지속하거나 치료 후에도 재발할 우려가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는 우울과 도박심각성과의 관계에서 회피동기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울과 부정정서로부터의 회피동기가 모두 도박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처럼 부정정서 회피동기가 우울과 도박심각성 간의 관계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도박장면에서는 한 가지 동기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동기들이 공존할 수 있다(이홍표, 2003).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기능적인 수준의 유희동기나 사교동기를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준의 도박행동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드시 도박동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리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집단의 경우에는 우울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도박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동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진압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도박을 선택하는데,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이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보상받기 위해 과한 흥분 혹은 위험한 상태에 머무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Raghunathan, & Pham, 1999).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의 이득만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이정균, 2003) 도박에서 즉시 보상된다는 측면이 이러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성과 결합하여 부정적 정서를 겪을 때, 다른 적절한 현실적 대안을 찾거나 대처전략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박에 쉽게 몰두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결과의 함의를 종합하자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우울이 공병하거나 두 질환 성향이 강한 경우에 우울감을 조절하는 것이 도박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동기는 5가지 도박동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피동기만을 사용하여 우울과 도박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약한 집단에서 회피동기가 우울과 도박심각성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회피동기 외에 4가지 다른 도박동기들,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주요 변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도박동기를 통한 매개효과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들과 도박의 관계 고찰, 도박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의 특성, 그리고 매개효과를 가지는 다른 주요 변인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임상군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상집단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확대하고, 직업 및 연령 등의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성인 초기에 흔하게 발병하고 한 번 고착되면 치료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므로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우울, 회피동기, 도박심각성 등의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에 부정적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왜곡된 반응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이외의 구조화된 면접과 같이 대안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 변인들을 동시에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에

따른 우울과 도박심각성의 관계를 회피동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인과 관계는 가설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한 장기적 종단연구로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선중 (2014). 도박 관련 신념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 대한 재탐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단기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21(4), 359-376.
-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도박성 게임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성 및 병적 도박의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85-320.
- 김이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 김용현, 신재현, 김상운 (2010).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3), 111-134.
- 김진혁 (2013). 도박의 현실적 통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52, 11-36.
- 민성길 (2006). 제 5판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201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201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신희천, 신은향 (2000). 이상심리학 시리즈 19: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들, 반사회성 성격

- 장애. 서울: 학지사.
- 유채영, 김은혜 (2014). 문제도박 경로에 대한 탐색연구: 사회적 역기능과 문제음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25(4), 317-341.
- 이규환 (2009). 의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마음건강 X파일; 불안한 사회, 갈등하는 가족에 도사리는 마음병 정복 원리. *왕의서재*, 201-207.
- 이인혜 (2004). 카지노게임 선호유형, 성별, 도박심각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51-378.
- 이정균 김용식 (2003). 제4판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55-176.
- 이태원 (2004). 카지노출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2), 173-219.
- 이흥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18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luja-Fabregat, A. (2000). Personality and curiosity about TV and film violence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9, 379-392.
- Blaszczyński, A., &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97(5), 487-499.
- Cloninger, C. Robert.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6), 573-588.
- Cloninger, C. Robert., & Svorakic, D. M. (197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Delfabbro, P. H., & Winefield, A. H. (1999). Poker-machine gambling: Analysis within-session characteristic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0, 423-439.
- Dickerson, M. G., Baron, E., Hong, S. M., & Cotrell, D. (1996). Estimating the extent and degree of gambling related problems in the Australian populatio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Gambling Study*, 12(2), 12161-12178.
- Griffiths, M. D. (1995). The role of subjective mood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fruit machine gambling behaviou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1(2), 123-135.
- Ibanez, A., Blanco, C., Moreryra, P., & Saiz-Ruiz,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4, 295-301.
- Jacobs, D. F. (1987).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 Application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lanning for pathological gamblers*. In T. Galski (Eds.), *The Handbook of Pathological Gambling* (pp.169-194),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Kennedy, S. H., Welsh, B. R., Fulton, K., Soczynska, J. K., McIntyre, R. S., O'Donovan.

- C., Milev, R., le Melleo, J. M., Bisserbe, J. C., Zimmerman, M., & Martin, N. (2010). Frequency and correlates of gambling problems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9), 568-576.
- Lesieur, H. R., & Rosenthal, M. D. (1991). Pathological G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5-39.
- McCormick, R. A. (1987). Pathological Gambler: A parsimonious need-state model.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3*, 257-263.
- Raghunathan, R., & Pham, M. T. (1999). All negative moods are not equal: Motivation influences of anxiety and sadness o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9*, 56-77.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sychopathology, 34*, 159-163.
- Vitaro, F., Arseneault, L., & Tremblay., R. E. (2002). Impulsivity predicts problem gambling in low SES adolescent males. *Addiction, 94*(4), 565-575.
- 1 차원고접수 : 2014. 10. 06.  
심사통과접수 : 2014. 10. 21.  
최종원고접수 : 2014. 10. 31.

##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Aversion to Negative Affect, and Gambling Behavior as a Function of Antisocial Disposition

Yeun-Joo Hur

Yoori Seong

Kwangbai Par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motivation of underlying gambling is a strong factor to explain gambling behavio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gambling behavior is explained by aversion to negative affect depending on the level of antisocial disposition. The participants were 239 university students and answered the Korean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s(K-PDT), Korean Depression Scale(KDS), the 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2011 (KCPGI-2011), and Gambling Motiv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version to negative affect as a motivation for gambling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gambling behavior among the individuals with relatively high antisocial disposition]. But the aversion to negative affect did not expla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dividuals with relatively low antisocial disposit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gambling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or without antisocial personality.

*Key words* :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disposition, gambling, depression, aversion to negative affect